

“加 잠수함 사업 잡는다”... 한화오션, 현지 협력망 확대

노바스코샤 주정부·어빙조선소와 방산 협력 방안 논의
숙련 인력 양성·안정적 공급망 구축 전략 다각도 공유
현지 최대 건설사 PCL과 전략적 협력 합의서 체결도

한화오션이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정부 및 어빙조선소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캐나다 핼리팩스를 방문해 팀 휴스턴 노바스코샤 주총리 등 주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방산-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의 국방 현대화 기조에 맞춰 △방산 대비태세 강화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확보 △현지 인력 양성 △산업 기반 구

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김 대표는 더크 레스코 어빙조선소 사장과 면담을 갖고 캐나다 해군의 자주적 잠수함 역량 확보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화와 어빙조선소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 숙련 인력 육성, 안정적인 공급망 형성,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캐나다 정부가 중시하는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캐나다 주도의 장기적 잠수함 유지보수 산업 기반 구축



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노바스코샤는 합정 건조 및 장기 유지용 용(MRO)에 적합한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며 항공우주, 해상풍력,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어빙조선소는 북극 및 연안 경비함, 핼리팩스급 호위함 MRO, 차세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리버급 구축함 사업 등 캐나다가 추진 중인 주요 해군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최대 규모 조

선소다.

한화오션은 노바스코샤와 어빙조선소와의 협력으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과 관련해 장기적인 산업 참여 및 유지비용 전략을 공유하고 캐나다 내 산

업 기여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화오션은 캐나다 최대 건설기업인 PCL과 전략적 협력을 체결하는 등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과정에서 신속한 전력과, 안정적인 유지보수-정비(MRO) 체계 구축, 캐나다 주도의 산업 기반 강화, 장기적인 기술 이전 및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캐나다 산업계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캐나다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잠수함 운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훈 기자 yhle@skyedaily.com

SK네트웍스, SK일렉링크 지분 거래 완료

SK네트웍스가 사업구조 최적화 및 효율적인 자본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SK일렉링크에 대한 액커에퀴티파트너스와 의 지분 구조 변경 거래가 13일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SK일렉링크의 최대주주가 액커에퀴티파트너스로 변경된 이후 추가적인 과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잔여지분은 21.4%가 됐다.

SK네트웍스는 올해 3월 자회사 민팅 지분 90%를 450억 원의 금액에 티엔케이 프라이빗에퀴티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상반기 중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2024년에는 SK렌터카 지

분 전체를 820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SK네트웍스는 이를 통해 대내외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강도 높은 사업 리밸런싱과 운영 최적화를 바탕으로 한 체질 개선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3년 연결 기준 5조 원대였던 차입금은 지난해 말 1조8000억 원대로 줄었으며 320%가 넘는 부채비율 또한 150%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대대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SK네트웍스는 이와 같은 안정성에 기반

민팅 지분매각 상반기 중 완료 예정
“사업구조 최적화·재무 수익 확대”

해 AI 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주요 사업별 신규모델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SK인텔릭스는 AI 기반 웰니스 로보틱스 브랜드인 ‘나무엑스’를 만들어 지난해 10월 말 론칭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피닉스랩이 개발한 제약산업 특화 AI 솔루션 케이론의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 판로 확보를 추진 중이다.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는 기업의 AX 도입에 필요한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인크로스에선 올해 AI 기반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 ‘스텔라이즈’의 스타터 번들 패키지를 출

시하고 AI 배너 제작 자동화 에이전트 ‘미사이즈에드’ 오픈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AI 접목 사업모델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SK네트웍스는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에 추가 투자를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SK네트웍스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기반으로 보유 사업의 수익력 강화 및 AI 중심 성장을 이뤄갈 계획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안정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며 “AI 전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CJ올리브영, 업무 전반 ‘제미나이’ 도입

MD·마케팅도 직접 활용

매장·물류까지 AI 확대



CJ올리브영 매장에서 고객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전 구성원의 업무 환경에 구글 클라우드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Gemini Enterprise)’를 도입하며 전자 자원의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올리브영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당 AI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이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AI 도구를 직접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도입은 유통업계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개인화 서비스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리브영은 그간 데이터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AI 적용 범위를 넓혀왔으며, 앞으로는 생성형 AI를 전반적인 업무에 본격 적용해 구성원 누구나 AI를 활용해 업무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비개발 직군의 활용 폭이 커질 전망이다. 상품기획자(MD)와 마케팅 담당자 등도 직접 AI 도구를 만들어 시장 조사와 고객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업무를 자동화·고도화함으로써 실무 생산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도 AI가 본격 투입된다. 올리브영은 AI를 통해 매장 진

열과 재고 현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는 등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향후에는 물류 네트워크와 플랫폼 운영 전반으로 AI 적용 범위를 넓혀 중장기적인 운영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AI 활용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리브영은 국가별 언어 환경과 고객 특성에 맞춘 상품 정보 제공 등 해외 고객 접점 전반에 AI를 접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K뷰티 플랫폼으로서 축적한 데이터와 AI를 결합해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초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구성원 개개인의 AI 활용 역량을 높여 조직 전반에 AI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 경험을 지속 고도화하며 K뷰티 대표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나운 기자 nykim@skyedaily.com

美 호르무즈 역봉쇄에 기름값 상승... 서울·제주 등 2000원 돌파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0원에 근접했다.

14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96.2원으로 전날보다 1.3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1.0원 상승한 1989.8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026.6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올랐고, 경유는 2012.3원으로 10원 상승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는 지역은 제주(2029.1원), 서울(2026.6원), 충북(2001.8원), 경기(2001.0원) 등이다.

기름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다.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가격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국내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게시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13일(현지 시간)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4.16달러(4.37%) 오른 배럴당 99.36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2.51달러(2.60%) 상승한 99.08달러에 마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skyedaily.com



서울 시내의 주유소에 유가정보표가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비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가.

한영임 지음 | 272쪽 | 15,000원
도서출판행복에너지

비쁜 일상 속, 당신을 토닥여줄 요가 에세이

느려도 괜찮아

아사나(요가 자세)를 할 때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아팠지만 몸을 늘리고 비틀고 거꾸로 서는 과정에서 마음이 말을 걸었다.

너무 애쓰지 마라.

괜찮다.

일만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살아가.